

Canace Nero di Troia

까나체 네로 디 트로이아



생산자 칸티나 디오메데(Cantina Diomede) < 판티니 그룹(FANTINI GROUP)
품종 네로 디 트로이아(Nero di Troia) 100%
등급 IGP
생산지 뿌리아(Puglia), 이탈리아

BODY ●●●●●
SWEET ●●●●●

수상 **2022/2020 Luca Maroni - 98점(Vint.2018/2015)**
2019 Luca Maroni - 96점(Vint.2014)
2017 Luca Maroni - 97점(Vint.2012)
2015 Luca Maroni - 96점(Vint.2010)

➤ 품종의 어원은 뿌리아가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을때, '트로이 전쟁'으로 유명한 트로이로부터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.

➤ 8개월 동안 콘크리트 탱크에서 숙성 후, 아메리칸 오크 배럴로 옮겨 12개월을 추가 숙성하여 출시한다.

까나체는 뿌리아 북부의 카노사(Canosa) 마을에서 재배되는 네로 디 트로이아 품종을 사용하여 양조하는데, 와인메이커 필리포 바칼라로(Filippo Baccalaro)의 컨설팅과 유기농으로 관리되는 포도밭에서 손수확을 통해 최상급의 선별된 포도로만 생산되는 판티니 그룹의 자부심을 지닌 와인이다.

- Color 짙은 바이올렛-레드 컬러
- Aroma 다양한 꽃 아로마, 커피, 코코아, 감초 등의 따뜻한 향신료와 잘 익은 베리류
- Palate 벨벳처럼 부드러운 미감과 신선한 산도, 우아한 타닌과 뛰어난 밸런스
- Pairing 붉은 육류, 야생고기, 양갈비구이, 숙성 치즈
- Serving Temp. 18°C